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기간 :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 Honduras, Las Flores (최 문재 선교사)  
사역 : 의료, 심방, 전도, 어린이
- 금일 오후 7 시 본 교회에서 Pleasantville 지역 교회 연합으로 추수감사 찬양예배가 열립니다. 세광교회 성가대도 "추수감사의 노래"로 예배를 섬깁니다.
- 오늘 친교후 예결산 위원회로 모입니다. (예결산 위원장 민 흥기 집사)
- 심방 중입니다. 친교실의 심방 일정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11 월 안내 : 신 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 백 희진 집사 / 시편 123 편

이번 주 친교 : 전교인 (추수감사주일) Blessings

다음 주 친교 : 황 인선 사모 / 백 희진 집사

##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47 호

2017 년 11 월 19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 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 정자** / 지휘자 : **임 대영** / 반주자 : **박 양희**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 주일예배순서

2017 년 11 월 19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1 절 <span style="float:right">다함께</span>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학생부 찬양팀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100 편 <span style="float:right">민 흥기 집사</span>
감사의 예물 (Gifts of Thanksgiving)	가족별 발표
주일학교 발표 (Thanksgiving Presentation from Sunday School)	
찬양(Choir)	“추수감사의 노래” <span style="float:right">세광 찬양대</span>
봉헌기도 (Offering and Pastoral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여호수아(Joshua) 4:20-24 <span style="float:right">인도자</span>
설교 (Sermon)	“주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span style="float:right">Edwin Kim</span> Remember What the Lord Has Done <span style="float:right">전도사</span>
* 찬송 (Hymn)	589 장(통 308 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span style="float:right">다함께</span> (Far and Near the Fields are Teeming)“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 2017. 11. 12. 주일 설교 요약

####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렘 24:1-7; 29:1-14; 31:31-33)

엘왕기가 망한 백성의 정직한 자기평가서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전망과 약속입니다.

24 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성전과 나라가 있는 곳에서 치료하는 정도로는 안될 중증입니다. “떡지 못할 나쁜 무화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를 부인하며 평강을 외쳤습니다. 중증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며 마음에 드는 진단을 해주는 의사를 찾아다니는 꼴이며, 입원이 필요없다며 당장 나가게 해달라고 우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오히려 좋은 무화과, 새로 난 무화과처럼 지키신다고 합니다. 70 년의 포로 생활은 범죄에 대한 징벌일 뿐 아니라 회복 기간입니다. 재활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엔 답답해 보이지만 한 이 시간도 회복의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풀어달라고 떤만 쓸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29 장에는 하나님의 처방이 나와있습니다. 포로 기간 중 어떤 일일 해야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고 살며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살고 있는 도시의 평화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곳은 살 곳이 아니니 곧 나갈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비록 끌려간 땅이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면 만나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끌려간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에 용기를 잃지 말고 줄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영원히 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에 휩쓸려 살지 말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소망과 감사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에서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여전히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감사와 새 힘과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곳이 살 곳이 아니라며 곧 돌아갈 것이라고 거짓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평안의 근본은 곧 잘될 것이라는 달콤한 위로도, 굳은 확신도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중보하는 일도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이나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때로는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이 평안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하신 그 화복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고 믿는 자를 아무 공로 없이 받아주시는 긍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긍휼을 구하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범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탓이 아닌 문제일지라도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과 문제라면 내 탓이 아니라며 원망과 정죄하는 대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한다면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마찬가지로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억울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31 장은 입원 재활치료를 마친 후의 회복의 전망과 약속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과 땅만 되찾는 게 아닙니다.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도 기억했건만 그 법이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뜻 알고 따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성화의 여정의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됩시다.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거룩하게 변화해 갈 뿐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남은 자처럼 쓰임받을 것입니다.